

# 景觀構成要素로서의 石造形物の 造形美와 機能에 關한 研究

李 在 浩

現代建設(株) 土木部 造景擔當

## A Study on Structural Function and Beauty of Stone Monuments as Landscape Elements

Lee, Jae ho

Hyundai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 Ltd.

### ABSTRACT

Culture has long been associated with and advanced by stone as observed in prehistoric dolmen, menhir, megalith monuments, memorial stones, and others. The close association of monuments is seen even in an earliest form of culture and is witnessed to evolve with human history. Korea, with its large quality granite repository, has been active with granite-based monuments in various forms of towers, bridges, and lanterns. These stone structures are so abundant throughout Korea that Korea has been called the country of stone tower in Asia. With this historical background, we survey these Korean memorial stone and monuments, found at roadsides, memorial buildings, village entrances, scenic places, schools, sermon halls, public pleasure grounds, and other common places. Based on installation orientation, location, and size, a particular emphasis is on the structural value, meaning, beauty, and function of these monuments coupled with trees, shrubs, water and appropriate landscapes.

### I. 序 論

文化란 “인간이 자연에 작용하여 財富을 생산하는 생산기술이나 知識, 信仰, 道德, 藝術, 慣習法 등을 비롯하여 인간이 사회의 成員으로서 獲得한 모든 생활능력의 複合體(whole complex)를 말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經濟生活, 社會生活, 精神生活등 전 분야에 걸쳐서 蓄積한 인간의 모든 生活能力 全部를 意味하는 것이다” (김철준역, 1976 4-5)

이러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특색으로, 복합적 生活能力을 표현한 優秀한 문화유물을 통하여 우리는 갖가지 方面에서 固有 韓國美를 꽃피워 왔다.

固有 韓國美에는 ‘태깅’이라는 構成美가 있는가하면 ‘맵시’라는 形態美가 있을 뿐 아니라, ‘결’이라는 表現美가 있는가 하면, ‘땃’이라는 精神美도 있다. 또한 ‘寂寞美’가 있는가 하면 ‘單純美’도 있고, ‘淸楚美’도 內包

되어 있다. 이처럼 고유 한국미는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깊이가 깊다.(황호근, 1970 3-4)

은은하며 忍容하고 슬픔을 삼기는 듯한 淸순한 한국미의 특성은 老壯思想의 영향을 입은 無爲自然의 수수함을 잃지 않으며 전통적 예절을 중시하는 素朴한 氣稟가운데 독특한 자세를 유지해 왔다.

한편 우리나라는 花崗岩國이라 할 수 있을만큼 전국적으로 花崗岩의 分布가 廣範圍하고 量이 豊富하여 일찍부터 돌을 이용한 文化遺産이 많이 登場하였다. 靑銅器時代에 처음으로 造形作品이 나타났고, AD 4C경 한반도에 불교가 들어온 이후 많은 石塔이 建立되었고 우리나라 문화재의 50%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풍부하여 塔의 나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인류는 돌을 물이나 큰 나무와 함께 神聖視 하었는데, 舊石器時代의 打製石器, 新石器時代의 磨製石器, 그리고 고인돌, 巨石記念物, 石器, 돌도끼의 사용 등 고대

의 機能的必要에 의한 돌의 이용 이후, 중세에는 宗教手段으로서 石塔, 佛像, 石燈이 만들어졌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石橋, 벼루, 印章, 紀念標識石, 기타 工藝品 등 實用性, 紀念性, 純粹造形品 등으로의 이용이 增大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林泉庭園과 함께 樹石庭園이 일찍부터 발달하였는데, 태양승배, 天壇築造, 祭壇築造, 마을앞 돌무리와 같은 信仰樹石, 대가야시대 경북 고령 지산도 古墳 수석군에서와 같은 墳墓樹石, 고구려 安鶴宮 遺蹟 및 백제 익산의 왕궁지, 신라의 雁鴨池 등에 나타나는 宮園樹石, 설악산 선정사 禪苑 3尊石, 文殊院 南苑의 禪庭園과 같은 寺院樹石, 고구려시대 이래 民家の 亭子나무 아래의 盤石,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한 마을입구의 陰陽石과 같은 民家樹石등은 돌을 이용한 우리 고유의 전통적 庭園造成手法이다.

또한 조선시대 孤山 윤선도는 연시조인 五友歌에서 水, 石, 松, 竹, 月을 다섯 벗으로 하여 각각 자연물의 특질을 들어 자신의 자연애와 觀照를 표현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나라가 전통적 돌의 나라이며 돌을 사랑하고 생활과 행실의 規範으로 돌을 사용하였음을 살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국적 조형미의 사상적 배경과 함께 조형요소로서의 돌의 이용을 바탕으로 돌의 특징 및 역사를 概觀하고 한국의 전통적 美意識에 根據한 기존 石造形物의 전통적 의미와 가치를 分析함과 아울러, 상징적 의미를 갖는 유사한 조형물의 施工專門化를 위한 基礎 研究를 試圖해 보고자 하며, 연구의 範圍는 공간적으로는 우리나라 全域의 文化財, 遺蹟, 觀光地, 傳統마을 등 돌 요소의 이용을 찾을 수 있는 곳을 모두 포함하며, 시간적으로는 고대의 文獻 및 遺蹟, 遺物등으로 전해 내려오는 돌의 이용 手法를 비롯하여 근대 조성된 주요 이용사례를 포함한다. 또한 연구의 主題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연구의 초기단계에서 點景物등 각종 石造形物의 이용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論議함으로써 돌의 文化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II. 研究方法

### 1. 研究過程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우선, 文獻調査를 통해 돌요소의 일반적 특성과 이용사례를 살펴 보고,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돌의 이용 측면에서 특기할 만한 景勝地를 現地踏査하여 遺蹟 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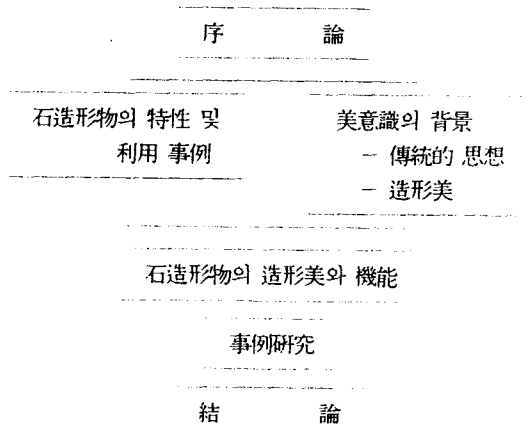
査 및 관계문헌 조사를 통해 자료를 보완하였다. 관계 자료는 주로 문화재 관련 자료와 古庭園, 古建築, 資料를 이용하였고, 현지 답사시 슬라이드 혹은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둘째로, 돌을 이용한 각종 조형물에 나타난 美意識의 배경을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상과 서구의 조형미 이론에 비추어 解析하여 石造形物의 특징을 考察하였다.

셋째로, 위의 두 단계에서 考察된 결과를 綜合하여 石造形物의 造形美와 機能을 解析, 定義하였다.

마지막으로, 事例研究로서 現地踏査를 통해 전국적으로 수집된 石造形物을 建造目的이나 形態, 象徵的, 意味 등에 따라 類型化하고 각 유형별로 대표적 事例를 선정하여 그 특징과 의미를 앞의 연구결과에 적용, 分析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간단히 圖表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表 1> 研究過程圖

## III. 研究結果

### 1. 景觀構成 要素로서의 石造形物 利用

#### 1) 돌의 特性

岩石(돌)은 보통 몇 종류의 鑛物의 集合體이다. 岩石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그 代表的인 방법인 生成原因에 의한 分類로서 火山爆發등에 의해 조성된 化成岩, 물의 堆積作用에 의한 堆積岩, 殼殼變動에 의한 變成岩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다시 化崗岩, 玄武岩, 砂岩, 烏石, 大理石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化崗岩으로서, 化崗岩을 다시 쥬라기의 大寶化崗岩, 白堊紀의 黑雲母化崗岩, 角閃岩등 구성하는 광물과의 配合率 및 產地 特性에 따라 여러가지로 細分할 수 있다. 여기서 石造形物の 재료로 적절하며 일반적으로 景觀 조성용으로 흔히 사용하는 화강암과 대표적 特異石인 대리석, 烏石 등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化崗岩은 深性系 化成岩으로써 이를 구성하는 광물은 結晶體인 石英, 長石, 雲母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백악기의 黑雲母 화강암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화강암의 구성광물 중에서는 장석이 風化作用에 약하므로 이의 含量이 여하에 따라 화강암 石物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경주 석굴암의 풍화 현상은 長石部分의 풍화로 알려지고 있다.

대리석은 石灰岩의 變成作用으로 이루어진 변성암으로써 대기, 빗물 중의 酸의 반복작용으로 용해되고 전반적으로 화강암계에 비해 풍화되기 쉬우므로 비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외장용으로는 부적당하며, 특히 熔蝕作用을 심하게 받으며 경도가 낮으므로 파괴되기 쉽다.

烏石은 砂岩의 일종인 퇴적암으로 중생대에 생성되었으며 충남 대천 및 충북 충주일원에 분포되어 있고 장석질 사암으로써 치밀한 검은색 色感으로 인해 景觀石으로 선호되고 있으나, 풍화에 약한 것이 缺點이다.

이상과 같이 화강석은 대리석이나 烏石과 같이 시각적으로 뛰어나지는 않으나 풍화작용에 강하고 조적이 경질이며, 가공여하에 따라 시각적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돌요소로서 灰白色의 色調가 주위에 비해 突出되어 보이기 때문에 옛부터 建築基段이나 각종 造形物에 사용되었고, 흰색의 옷을 즐겨 입는 민족의 感識은 白堂의 色感을 愛價하였다. 또한 화강암은 대리석처럼 면이 매끄럽지 않고 가벼운 凹凸의 感觸이 있어 옛부터 우리 민족의 感性과 어울려왔다.

## 2) 돌 요소의 導入

### 가) 石假山

石假山은 景觀構成要素로서의 ‘地形’, ‘물’, ‘植物’중에서 地形의 변화를 주기 위한 手段으로서 백낙천이 태호석을 찾아냄으로써 중국에서 시작된 기법인데 정원속에 自然石을 쌓아 올려 산의 모양을 構成해 놓은 정원축조물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초엽 혹은 중엽부터 석가산 築造技法이 施行되어 왔는데, 現存하는 것으로는 강원도 춘성군 청평사 계곡에 李資玄의 禪道

場으로 꾸며진 석가산이 남아 있고 다른 것으로는 정유재란 직후인 선조 32년(1599년) 御命에 의해 서울 남대문밖 남관왕조속에 꾸며진 석가산이 있다.(윤국병, 1983; 96-99) 또한 朝鮮 중종시대 양산보가 전남 담양군 소재원의 계곡 한가운데 꾸며진 석가산이 있었으나 유적은 전해져오지 않으며 瀟灑園의 版畫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중국의 석가산이 굴곡이 심한 돌을 석회로 굳혀 쌓아 올린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석가산은 납작한 板石을 여러겹으로 쌓아 올린데서 차이가 난다. 고려시대부터 성행하였던 석가산 技法은 조선 중엽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그 후로는 자취를 감추고 대신 怪石을 즐기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神仙思想의 비현실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임천정원으로 인한 자연 그대로를 즐기려는 思想으로부터 취해진 시대적 변화에 起因한다고 볼 수 있다.

### 나) 怪石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정원에 수많은 자연석을 얹혀 景觀의 운치를 도모하는 괴석기법이 발달되어 왔다. 옛부터 괴석이나, 수석, 庭園石등은 인공을 가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감상하는 자연석으로서 동양의 정신에서 우리나라는 자연애의 발로로 보았으며, 돌은 곧 자연이며 돌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바로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하였다. 養花少錄에서도 돌(怪石)은 굳고 곧은 덕을 지니고 있어서 菴子의 벗이 됨이 마땅하다(강호진, 1967; 98-99)고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의 괴석의 사용 실례로는 景福宮 아미산, 창덕궁 후원 장서각 주위 화단, 演慶堂 돌다리, 반도지, 樂善齋 후원, 연경당 中庭 翫문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연경당 烏鵲橋 옆에는 괴석을 심은 석본이 있는데 새겨진 두꺼비부리와 함께 달과 월궁을 상징한다. 즉 괴석은 월궁의 月桂樹가 되고 오작교를 흐르는 물은 銀河水가 되는 월상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깊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서울특별시, 1988; 28) 그외에도 경주의 안암지에도 景觀 구성의 요소에 배치하여 그림자를 투영시켜 독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怪石은 궁궐이나 住宅庭園에서는 주로 후원에 배치되었는데, 이는 당시 유행하던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건물의 배치에 있어 後園이 조경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花階등을 조성하여 관목류, 집경물 등을 도입, 축경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怪石은 이같이 사람이 자주 다니는 길목 혹은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두어 감상하도록 하였으며 놓여진 장소를 格調 높은 藝術氣로 이끄는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창덕궁 낙선재 후정의 괴석에 ‘小瀟洲’

라 조각되어 있는데 이는 동산 바치가 道敎에서 말하는 三神山(망장, 봉래, 瀟洲)의 하나를 옮겨왔다는 뜻으로(주남철, 1984; 100) 불로장생을 회구하는 신선 사상의 영향으로 보인다. 怪石은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적 화계의 직선적 꾸밈새로 인한 딱딱한 느낌을 깨뜨리며 지형의 변화를 주기위한 수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현대의 石造形物은 바로 괴석의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괴석의 놓인 위치, 경관 중심점으로서의 존재가치, 받침석의 형태미 등은 현대 石造形物의 좋은 표본이 된다.

#### 다) 石蓮地

물은 액체가 갖는 流動性과 강한 평면적 성격으로 인하여 여타의 景觀要素와는 대조적으로 경관구성상 獨特한 효과를 나타내어 景觀美를 한층 높인다.

석연지는 물확보다 커다란 돌을 거북, 龍 등의 모양으로 다듬어서 그 이름이 뜻하는대로 못을 조성할 수 없는 뜰에 놓아 연못을 代身하는 石物로서 정원에 놓이는 석물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크기가 다양하고 형태는 주로 장방형으로 조성되었으며 때로는 細心石으로도 불리운다.

경복궁 아미산원에 설치된 석연지는 '송월池' '落霞潭'이라 음각되어 있는데 지름이 겨우 1척반밖에 되지 않는 石池이지만 물속에 달을 잡아 놓고 불그레한 저녁노을을 가두어 즐기려는(정동오, 1986; 318) 선조의 풍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韻致를 엿볼수 있다.

石造形物 주변의 연못 조성 등 물을 이용한 경관의 확장은 여러 제한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隱隱하며 기품있는 水景觀 조성기법으로 활용한다면 일층 격조있는 景觀造成이 이루어질 것이다.

#### 라) 石燈

石燈은 燈火를 장치하기 위하여 건조된 石造燈器로서 불교에서 佛陀의 加被로 명량한 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의 災殃(불교의 8難)을 예방하기 위하여 삼국시대부터 법당앞에 건립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 이후 불교 융성에 따라 더욱 많은 석등이 사찰내에 건립되었다. 석등은 비단 사찰에만 소속된 장엄일뿐 아니라 陵墓앞에도 '長明燈'으로 건립되었다. 이러한 능묘 장엄물로서의 石燈은 공민왕 현릉에서와 같이 고려말기부터 조성되어 조선시대 제 왕릉에는 반드시 장명등이 설치되었다. 형태는 보통 팔각으로 만들어 지는데, 下臺石 위에 간柱를 세우고 그 위에 上臺石을 놓아 火舍石을 박고 그 위에 玉蓋石을 덮는 기본형태를 이루었다.

석등은 조형물로 가장 손쉽게 이용될 수 있으며 경관적 의미와 기능적 이용으로서의 두가지 측면을 가지는 현실적 석물이라 하겠다.

#### 마) 石橋

石橋는 예로부터 담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흔히 건립되어 온 돌의 대표적 이용사례이다.

우리나라 돌다리(石橋)중 가장 오래된 다리로는 충북 옥천의 청석교를 들 수 있는데, 널판지같이 얇은 길이 35cm의 청석 6장을 각 2장씩 3간으로 연결하여 놓은 다리로서 신라 문무왕때 건립되었다.

통일신라시대의 靑雲橋, 白雲橋, 蓮花橋, 七寶橋 등은 돌 계단에 연결된 虹梁형태로 우리나라 석교나 성문 虹梁의 始原을 이루며 무지개를 타고 극락정토로 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계단을 모두 오르면 불좌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로 이는 바로 불교의 이상향인 淨土를 의미한다.

서울의 돌다리로는 흥천사에서 옮겨온 석재를 이용하여 만든 광고와 성밖의 살곶이다리(箭串橋), 그리고 水標橋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청계천에 놓여진 水標橋로서 지금은 장충단 공원에 보존되어 있는데 물 흐름의 抵抗을 적게 받도록 考察된 마름모꼴의 교각을 세우고 긴돌을 건너 지른후에 동틀돌을 놓고 다시 청틀돌을 놓아 포상을 만들고 그 끝에 돌난간을 두어 다리 모양을 완성한 것으로서 다리 서쪽에 돌기둥을 세워 눈금을 긋고 청계천에 흐르는 물의 수량을 수시로 점검하였다. 이것을 水標라 이름지어 다리 이름까지 수표교라 하였는데 우리나라 다리의 역사에서 수심을 계량하는 목적을 지닌 과학적 기능의 돌다리로 그 존재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宮闕내의 석교로는 경복궁 근정전앞 御溝에 놓인 永濟橋와 창경궁 흥화문앞 옥천교, 돈화문앞 금천교 등이 있는데, 금천교는 직선과 곡선을 적절히 조합하여 만든 여성적미를 지닌 석교로서 모든 궁중 석교 가운데 가장 아담한 느낌을 자아내게 한다. 그외에도 특이한 석교로는 천연 아치교인 해남 두류산의 천연암 구름다리와 디딤돌 형식의 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에 있는 진천 농다리(籠橋)가 있다.

최근 교량의 대형화 추세로 석교의 건립은 한정된 일부 지역에 세워지고 있으나 線의 美 量의 美 面의 美 色의 美를 完備한 예술적 조형물로서의 석교건립은 우리 고유 전통 문화의 계승이라는 側面에서 적극 도입 될 수 있겠다. (서울특별시, 1988; 28)

#### 바) 墩臺(石段, 花階)

墩臺로서의 석단은 구릉의 사면을 계단식으로 처리하여 여기에 나무를 심고(花階) 굴뚝, 괴석, 석연지등을 놓음으로써 구성된다. 여기에 사용되는 석재로는 입면이 장방형인 장대석과 입면이 정방형인 사괴석이 있다. 비원의 연경당에 사괴석이 사용되었으며 대조전

에도 장대석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장대석은 격이 좀 더 높고 형식적인 장소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임승빈, 1975; 57)

石橋와 墩臺에서의 실용적, 기능적 사용은 석물사용이 경관적 조형측면에서 뿐아니라 모든 실제적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어 왔음을 나타내는 反證이 된다.

#### 사) 石塔

石塔은 象徴性이 크고 시각적 衝擊力이 크게 潛在해 있어 憧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탑은 이러한 성격을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하늘로 향하는 인간의 마음과 힘을 표현하며 하늘과 구름과 풍경을 조화시킴으로써 정서적 경관을 형성한다. 석탑은 그 형식과 建立技法, 材質 등에서 石造形物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라 하겠다.

기술한대로 우리나라는 화강석이 풍부하기 때문에 동양 3국중에서도 중국의 磚塔, 일본의 木塔에 비하여 수많은 석탑이 건립되어 왔고 옛부터 석탑의 나라로 불리워졌다.

塔婆는 줄여서 탑으로 오늘날 適用되고 있으나 본래 梵語의 STUPA, Pali語의 thupa의 寫音으로 알려져 있다(장충식, 1987; 61) 탑은 佛陀의 사리를 奉安하는 것이 근본 目的이기 때문에 寺刹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종교적 예배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佛像의 출현으로 종교적 가치는 다소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법당 앞에는 으레 탑이 세워지는 것이 관례가 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石塔이 발생한 시기는 AD 600년경으로 推定되고 있다. 불교가 처음 전래된 372년 당시에는 인도나 중국의 예를 따라 목탑이 건립되었으나, 건립 기술의 축적과 풍부한 화강암 材料에 힘입어 많은 석탑이 건립되었다. 이는 木塔이 비바람과 화재에 약하므로 영구적이고 장엄함을 더해주는 화강암을 더욱 選好하게 된 까닭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석탑은 현재 천사오백기가 보전되어 있고 있는데(서울시, 1988: 156) 중요한 석탑으로는 '東方 石塔之巔'라고 일컬어지는 백제의 彌勒寺址石塔, 같은 시대의 정림사지 10층석탑, 신라 석탑중 가장 오래된 芬皇寺址石塔, 통일신라의 감은사지 동서 3층탑, 異形 石塔의 모델인 불국사 다보탑과 화엄사 4獅子 3층 석탑, 고려시대의 월정사 8각 9층탑, 경천사지 10층석탑, 조선시대의 원각사지 10층석탑 등이 있다.

이러한 석탑의 造形上 특징으로는 우선 層數에서 홀수(陽數)를 선호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탑의 대부분은 3, 5, 7, 9등 홀수층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는 중국 魏書의 宮塔制度가 天竺의 구상에 따라 1級에서 3, 5, 7, 9에 이른다는 기록에서처럼 중국인들이 특히 陽

數를 좋아함을 그대로 받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정원의 5행석 配石과 같은 상징적 배석방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自然의 미적 요소가 보다 더 아름답게 조화되도록 상징적으로 배석하고자하는 의도에서 시각적으로 단조로우면서도 안정감을 느끼는 奇數를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기단의 기본 구조는 2층 기단위에 다층탑신을 형성한 점이다. 고려 및 조선시대에 이르러 일부 석탑의 기단이 8각형 또는 亞字型등 변형을 나타내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적 기단차리는 통일신라시대 전형석탑의 모델이 되고 있는 불국사 3층 석탑의 양식에서와 같이 2층기단 위에 다층 탑신을 이루고 있다.

또한 대부분 석탑의 屋石받침 부위는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entasis기법을 사용하여 균형있는 체감올로 시각적 점층미를 복돋우며 석탑의 육중함을 탈피하는 조형미의 기본 형태를 따르고 있다.

아) 기타 石物(주남철, 1984; 100: 문화재관리국, 1976; 140-143, 182)

石楊은 일면 石床이라고도 불리우며 평평한 돌을 정원의 경관을 즐길만한 자리에 놓아 그위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양산보가 꾸민 瀟灑園의 待鳳臺 및 암반에는 岩楊이 옛모습대로 남아 있다. 石楊을 앉히는 자리로는 정자의 앞이나 좌우 또는 연못가 등이 주로 選好되었다. 즉, 石楊은 정자를 補助하는 石物인 것이다.

石函은 괴석을 앉히기 위한 石物로 괴석대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네모진 형태로 나지막하게 만들어 지는데 때로는 6각형 또는 8각형으로 꾸며진 것도 있다.

물확은 돌확 또는 水確이라고도 하는데 본래 작은 돌절구를 뜻한다. 괴히 크지 않은 돌덩이로 정으로 쪼아 중앙에 큰흙을 파고 물을 담아 뜰에 놓는다.

飾石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시각적 조형물이 된다. 昌德宮 宙舍樓 앞에는 직육면체의 飾石이 있는데 裏面에는 꽃무늬가 조각되어 있고, 또 경복궁 자경전 基壇앞에도 해태像의 飾石이 있다.

幢竿支柱는 幢을 달아두는 장대인 幢竿을 세우기 위하여 양쪽에 지탱하는 지주로서 중간에 幢竿을 堅立하는데, 대개의 경우 석재로 만든다. 幢이란 본래 사찰의 문전에 꽂는 깃대의 한 종류로서 속칭 掛佛이라 하는데, 그 표면에 佛畫가 그려져 있으며 寺刹에서 祈禱나 法會등 의식이 있을 때 幢竿에 달도록 되어 있다. 幢과 幢竿의 조성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각사찰에서 성행되었는데, 현재 幢은 남아 있는 것이 없고 앞부분의 幢竿과 지주만이 현존하고 있다.

돌하루방은 제주도에 있는 특색있는 석물로서 제주도 토박이의 얼굴 모습을 하고 있는데, 독특한 얼굴 표정이 위엄과 익살스런 인상을 자아낸다. 옛부터 城門 밖 마을 어귀 등에 세워 두고 守護神으로 모셨으며, 呪術的, 禁標의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보아 내륙 전역에 分布하는 장승과 그 역할이 類似함을 알 수 있다. 材料 또한 제주도 特産石으로 基石 전면이 'O'형과 'L'형의 특수한 형태로 되어 있음이 대부분이다.

石碑는 중국 한나라시대부터 돌에 조각을 입혀왔으며,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한사군시대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建立한 광개토왕비 이후 石碑가 널리 분포하게 되었는데 안내표지판 또는 石造形物의 중요한 사례가 된다.

長丞은 里程標의 구실을 하기 위해 돌이나 나무를 깎아 일정한 거리마다 세웠는데 때로는 경계표로서 사찰 어귀에 세워지는 일도 있었다. 후세에 이르러 부락의 守護神으로 洞口밖에 남녀의 생김새로 꾸민 한 쌍을 나란히 또는 마주 보는 위치에 세우는 일이 많아졌다. 일반적으로 위엄성있는 容貌로 조각하고 男神의 몸집에는 '천하대장군', 여신의 몸집에는 '지하여장군' 또는 '지하대장군'이라 墨書해서 세웠다. 長丞은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 재료로 안내표지판 또는 石造形物에 이용한다면 뛰어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인간의 모습을 띤 고대의 선돌이나 고대 그리스의 境界石의 일종인 境界柱(herms), 그리고 인간형상을 하고 있는 돌 偶像과 같이 돌을 擬人化함으로써, 돌에는 영혼이나 신이 거주하고 있다는 돌에 대한 종교적 畏敬心을 표현하였으며 聖書에 등장하는 야곱의 돌베개도 돌의 종교적 표현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A. Jaffe, 1964)

## 2. 造形美意識의 背景

### 1) 思想的 背景

한국인의 미의식에 대한 傳統的 背景으로는 우리 역사상 커다란 思想的 줄거리를 이어 온 佛敎, 性理學, 神仙思想, 老莊思想, 風水地理說 등을 들 수 있다.

삼국시대이래 불교는 호국불교로 隆盛하였으며 佛敎信仰이 국민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투되어 寺院이 건립되고 造塔과 造像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建築, 彫刻, 繪畫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 (문화재관리국, 1976 ; 29-30)

조선시대에는 性理學이 범국가적으로 장려되었고 국가의 統治理念이 되는 등 당시 모든 사회분야의 規範이 되었다. 그러나 성리학은 지나치게 觀念世界에 치우쳐 형식과 예법에 얽매었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합리

적인 실천사상으로는 未洽하며, 다만 자연에 강한 修飾을 가하지 않고 전통적 자연관으로서 隱隱함을 심취하며 있는 그대로를 즐기려는 低流를 형성하는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道敎의 神仙思想은 중국의 秦과 漢시대에 크게 유행하던 사상으로 신선의 존재를 믿고 道를 성실히 닦는 자는 신선이 사는 곳에 이르러 不老長生の 靈藥을 얻을 수 있다는 功利的 신앙(Vacuous Religion)으로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부터 널리 퍼져 민간신앙으로 土着化되었는데, 傳統 庭園 양식의 가장 특색있는 사상적 배경을 이루었다. 한국인은 중국 전래의 신선사상을 十長生으로 한국화하여 갖가지 장식물에 활용하였는데 대표적 사례로 경복궁 자경전 間階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십장생중 松, 龜, 鶴, 鹿, 不老草 등이 麟이나 글썽에 그림으로 표현하는 일이 많았다. (정동오, 1986 ; 295-296)

중국에서 전래된 老莊思想은 현실을 초월한 隱逸 지향적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실체는 현실생활을 위한 지혜와 亂世를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며 처세에 뛰어난 원리를 교시해 준다. 성리학이 인륜의 규범과 정치이념을 주로하는 엘리트사상이라한다면 老莊思想은 일반 대중생활과 밀착된 서민 중심의 사상이라 하겠다. (윤장섭, 1986)

老莊思想은 자연에서 터득한 溫雅하며 柔順한 슬기로운 그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공간설계에 있어서도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형적 디자인에만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것과 비어 있는 것을 의미있게 구성-물입함으로써 자연의 도를 체득하고 조화의 변화에 순응하는 自在精神을 나타내는 길잡이로서 우리에게 내면적 깊이를 갖는 여운을 준다.

風水地理說은 최창조(1988)에 의하면 음양오행론과 주역적 사상을 논리의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방술로 기본요소는 산, 수, 방위이며 실체로는 龍穴砂水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한국적 사유체계 또는 지구과학으로서 追吉避凶을 목적으로 삼는 相地技術學으로 일종의 토지관의 표출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구성은 산, 수, 방위, 사람 등 四者의 조합으로 성립된다.

조형면에 있어서 풍수지리는 적절한 위치와 좌향문제, 주위와 잘 조화되는 借景 선택의 문제가 기본이 되며 이 방면에서 옛부터 내려 오는 전통적 사상 배경을 이룬다.

### 2) 조형미 형식의 세부기법

아름다움의 추구, 미를 찾는다는 것 그 자체를 현대는 형태미와 기능미의 일치, 무리없는 변화의 조화, 정

직한 형태, 정직한 표현 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올바른 디자인이라 말한다. (전성권의, 1988)

오늘날 조형(Gestaltung)이란 어휘는 갖가지 분야에서 미를 찾기 위한 모든 올바른 디자인, 전보다 더욱 강조된 개성과 자유로운 표현세계의 추구를 종합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조형은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미적 가치의 집결형태로서 새로운 학문 영역으로 나타나면서 스스로 독자성과 자율성,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같은 추세는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의 명칭에 까지 사용하게 되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조형의 개념은 동서양 어디에서나 상호 의존적이며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형미에 있어서 보편성과 세계성, 아름다움의 추구는 이제 전세계적 목표가 되었으며, 어느 분야에서나 미의 원천을 밝히며 그 기능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石造形物 분야에 適用될 수 있는 空間構成的 細部技法을 살펴보면 東洋에서는 三才美 借景手法 물을 이용한 景觀의 延長, 人間的 尺度(Human scale) 등을, 西洋에서는 黃金率이나 對稱, 對照, 均齊 등의 造形美의 構成原理등 여러가지 細部技法을 살펴 볼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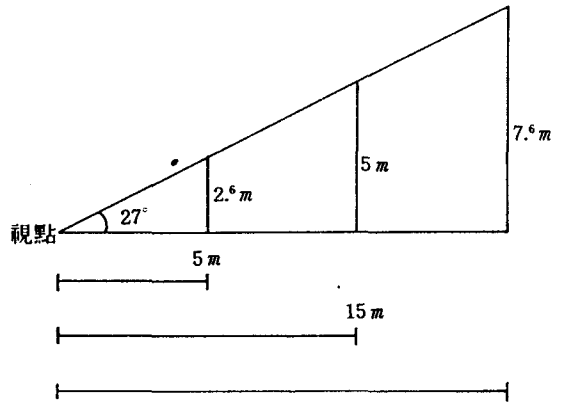
가) 三才美(김광래외, 1985 ; 108-110 : 동아출판사, 1983)

三才란 中國 고대사상에서 宇宙의 3가지 근원을 뜻하는 말로서 天, 地, 人을 가리킨다. 이러한 중국사상의 특징을 인간은 天地自然과 對立해서 이를 征服하는 존재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간은 自然에 順應해야하며 스스로 만물을 기르는 天地의 作用에 참가해야 하는 存在이며, 그러므로 인간의 尊嚴性을 표현할 수 있다는 構成原理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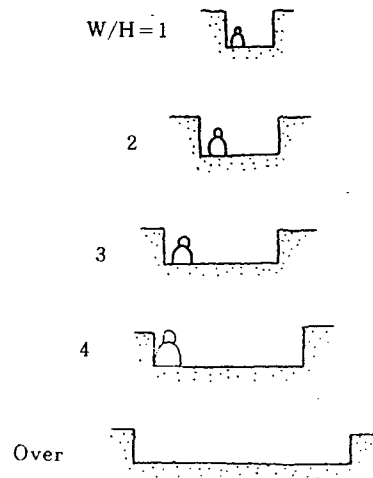
나) 借景기법

借景은 동양 전래적인 자연관에 기인한 우수한 조망을 구성하기 위한 기법의 하나이며, 사계의 풍경에 변화가 있고 그곳에서 自然의 추이를 즐길 수 있게끔 遠借, 隣借, 仰借, 俯借와 같이 때에따라 借하도록 구성되어짐을 의미한다. (김영빈, 1988 ; 73) 특히 林園 구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차경을 기본으로 주변의 景觀을 형성토록 하였다. 이 중에서 石造形物의 보여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仰借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관을 바라보는 양각과 視界는 중형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대체로 양각은 <18°-45° 범위로서 가장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작은 <27° 내외가 된다. (그림참조) 視界는 시점으로부터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30° - <45° 범위를 가지며, 그러므로 우리의 시계는 <60° - <90°의 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김광래 외, 1985 ; 105-106)



<그림 1> 仰角의 범위



<그림 2> 위요공간의 시각효과  
(자료 : Lynch, 1962)

또한 단순한 높이에 대한 가장 자연스런 대상물과의 관계는  $D=2H$ 에 가까울수록 명확하며 선호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건설부, 1975 : 선우정원, 1987), 또한 가장 쾌적하고 능률적인 외부공간은 1:1H-1:4H사이의 공간으로 위요된 공간에서는 1:2-1:3정도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며(Lynch, 1962), 1:4이상의 거리에서는 공간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황인주, 1988 ; 재인용 : Lynch, 1962) 한편 도시광장의 경우 시각적선호를 나타내는 높이의 비는 1:6이상이라

는 연구도 있다. (황인주, 198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인간적척도에 가깝다고 알려진 1:2를 표준적으로 삼고자 한다.

#### 다) 물을 이용한 경관의 연장

물은 지형의 변화, 수목식재와 더불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 옛부터 활용되어 왔다. 민가, 別墅, 관광서뿐 아니라 宮闈내에서도 옛부터 수많은 연못이 축조되었으며 연못축조가 불가능한 좁은 공간에서도 이념적 공간확장을 試圖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까운 事例로 경복궁 아미산의 落霞潭, 涵月池와 같이 修身과 멋, 운치를 즐기는 풍류를 나타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고 이러한 風流는 동양적 조형미 형성의 根源을 이루어 왔다.

#### 3) 조형미의 적용

##### 가) 象徵性(Symbol)

사람은 말과 글을 자기 생각과 느낌을 나타낸다. 그러나 말과 글보다 더 직접적으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상징을 사용해 왔다. 상징이란 쉽게 볼 수 있는 사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의미를 즉시 알아 듣게 해주는 하나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3; 123)

상징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숨겨진 의미를 맞춤으로써 하나의 진실을 완성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의 배후에 숨겨진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상징은 진실의 숨겨진 반쪽인 것이다. (김경중, 1985; 50)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무수히 많은 상징을 추구해 왔고 인간의 마음은 무한한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 왔다. 石造形物에서도 상징없는 石造形物은 공허할 정도로 상징은 큰 의미를 지닌다.

환경속에 어떤 상징이나 상징적 요소가 있어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 받는 경우는 매우 많다. 이들은 대체로 상징의 주제가 명확하고 때로는 기념탑 혹은 상징탑과 같이 의도적인 상징 부여에 따라 이룩되기도 한다. 이런 예로 고대로부터 주로 상징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자연석, 동물, 원, 첨탑, 십자가, 정방형, 거인 등이 있다. (이규목, 1988 재인용)

한편 서양인은 비교적 단조로운 반면 동양인은 다양하며 사색적이고 복잡미를 가진 정신적 의미를 많이 지니고 있다. (김광래외, 1985; 69) 그러므로 상징은 동양인에게 한층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反面에 지나친 象徵性的의 추구는 조형물로서의 石造形物의 특징을 輕視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象徵性

과 造形美, 즉, 象徵美學的의 接近과 形式美學的의 接近의 적절한 調和가 필요하다.

이와같이 石造形物을 통하여 적절한 상징성을 압축 표현하여 사물의 배후에 숨겨진 의미를 음미하며 진실의 숨겨진 반쪽을 찾아 낼 수 있다.

##### 나) 조형미의 원리 적용

우리는 옛부터 탑의 屋蓋받침 부위에 entasis기법을 적용하여 遞減美를 즐겨 왔으며 方形 기단의 비율이나 무량수전, 상대웅전, 불국사 3층석탑의 기단과 높이의 비례등에서 황금비율을 실제 적용하였으며, 화엄사 3층 사자석탑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부의 주요재의 크기를 地臺石폭(唐尺 14尺)을 기준한 조형비로 구하였고(임영비, 1965; 38) 쌍탑의 설치로 장엄과 균형, 비례미를 표현해 왔다. 또한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에서는 위치와 거리에 따르는 조화있는 기념적 크기를 실현하였다.

석재는 풍부한 화강석을 이용하여 주위환경과 溫雅하며 眩亂치 않은 색채의 조화를 피하였으며 석연지나 괴석 등을 사용하여 인간적 수양도구로 이용하였고 정신적 정서와 풍류를 즐겨 왔다.

이와같은 전통적 조형미 원리를 설계 시공에 광범위하게 적용, 개선함으로써 石造形物 고유의 새로운 조형미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다) 樹木, 水景, 借景活用

우리나라 石造形物에서 공통적으로 미비된 것중 하나는 주변 식생부족 현상과 차경수법을 통한 주위환경과의 조화를 소홀히 한 점을 들 수 있다. 아무리 뛰어난 상징성과 기능성, 특출한 조형미의 원리에 충실한 石造形物이라 하더라도 주변의 식생이 빈약하거나 부조화, 주위환경과의 차경성이 부족하다면 뛰어난 石造形物로 남을 수 없을 것이다.

기단을 중심으로 整然히 식재된 관목과 石造形物 후면의 균형있는 수림대는 계절변화에 따른 수목의 운치 있는 색채감과 어우러질 때 훌륭한 경관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기단 바닥에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조석, 자갈 등의 표준화된 재질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향토 수종을 이용한 식재방식은 한층 격조 높은 경관을 조성해 줄 수 있다.

借景은 遠借, 隣借, 仰借, 俯借 모두 장소에 따라 조성되도록 함으로써 조망과 사계의 풍경에 따른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가꾸며 수경활용기법으로 石造形物 주변에 적절한 연못을 축조함으로써 물가에 투영된 輪映의 아름다움을 더불어 느낄 수 있게 한다면 질적 공간 확장과 더불어 세련된 경관미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3. 사례연구

#### 1) 石造形物의 분류

석조형물의 분류체계 방법은 여러 방향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조형물의 재질이나 건립위치, 시기, 규모, 목적 등 접근 방향에 따라 분류체계가 다양하나 본질적인 분류체계로 보기는 어려우며, 본 연구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분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한 분류체계를 적용한다. 기능은 건립 목적과 이용 중복되는 면이 많으나 목적보다는 기능이 더 포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기능을 분류체계의 주제로 하고자 한다.

먼저 이정표나 안내의 기능을 갖는 표지석을 들 수 있는데 표지석에는 마을이름, 거리 등이 기록된 마을 입구 표지석과 장승 등이 있다. 이들은 대체로 인간적 척도에 접근하여 간단한 안내또는 지표의 기능을 갖지만, 장승의 경우 신약적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건설현장이나 전적지, 경승지 등에 특정 사실, 사물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는 紀念標識石이 있다. 기념표지석에는 건설기념탑(비), 전승기념탑(비), 경관, 경승비, 휘호석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인간적 척도에서 크게 벗어나 기념적 규모를 갖게 되며, 紀念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유지되고 형태 자체에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된다. 휘호석의 경우 오히려 앞의 分類에 적합하나 기념의 의미가 강하므로 본 기념표지석으로 분류한다. 그외에도 학교나 종교단체 등의 紀念碑도 휘호석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의 功績이나 語錄 등을 기리기 위한 비석이 있는데 여기에는 공적비 또는 송덕비, 詩碑, 그림비 등이 있으며 墓碑나 고인돌 등도 이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외에도 본 연구의 주제에서 다소 벗어나는 조형물로는 각종 점경물과 근래 도심 건축물 주변에 의무적으로 조성되는 藝術作品으로서의 象徴造形物중 돌을 재료로 한 조형물,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불상이나 선돌, 의인화된 우상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위의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形態上 特色 있는 몇가지 石造形物을 중심으로 조형상 특이점, 경관상, 착안점, 기능성등을 중심으로 연구해 보기로 한다.

#### 2) 全州近郊 마을入口 標識石

全州近郊 南原方面 國道邊에 單位마을의 標識機能으로 設置되어 있다. 標識石의 규모는 높이 15m내외로 누구에게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人間的 크기가

다. 보도에 접근한 설치 위치는 D-2H의 거리가 더불어 人間的 크기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하단부의 淡白한 花崗岩, 상단부의 원형의 검정 오석은 시선집중의 효과를 증대시키며, 하단부 받침대 사이로 시야가 개방되어 디자인된 것은 파리에펠탑의 空隙 透過性과 같은 (정무용역, 1986; 140-151) 시각적 산뜻함을 더해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 자체에 안정감이 있으며 재질상의 대비 효과와 더불어 흡사 나무잎에 둘러 쌓인 꽃봉오리와도 같이 형태에 대한 상징성이 뛰어나다. 다만 입구 표지석 주변의 樹木植栽등 周邊處理와, 周邊 景觀과의 調和 및 借景에 대한 配慮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이 標識石 자체의 아름다움을 상당히 減少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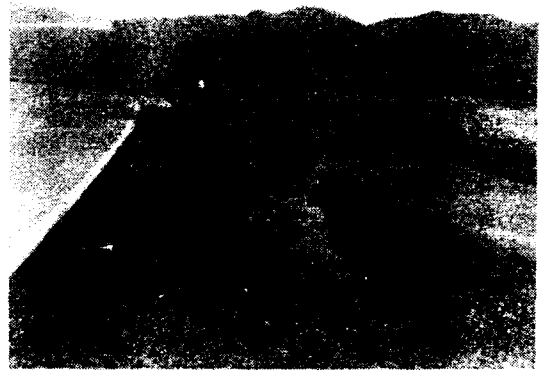


사진 1. 全州近郊 마을入口 標識石

#### 3) 진천 미호저수지 建設 紀念標識石

1986년 농업진흥공사의 미호천 유역 개발에 따른 대형저수지 준공시 건립된 전형적 建設紀念標識石이다. 基壇部 형태는 花崗岩을 사용하여 농업용수원인 저수지의 물을 象徴하는 '水' 字를 나타내고 상층에는 자연석을 利用하여 저수지의 명칭을 陰刻하였다. 紀念標識石의 경우 명칭의 글씨는 누가 썼느냐에 따라 重要な意味를 지니기도 한다.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大統領에서부터 발주처 社長, 著名한 藝術家, 建設을 擔當한 실무진 등 글씨는 건설 기념표지석 자체의 紀念과 더불어 언제까지나 後世에 남는다.

본 기념표지석은 설치 위치가 西方으로 開放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 환경과의 借景성이 뛰어난 것이 돋보이며 아래로부터 포장면의 적색, 경계석주변의 백색 人造石, 회백색의 花崗岩, 自然石(烏石)의 흑갈색 등이 주위 樹林帶와 면대산, 하늘과 어울려져서 純粹하고

소박한 자연미를 한껏 나타내고 있는 것이 特色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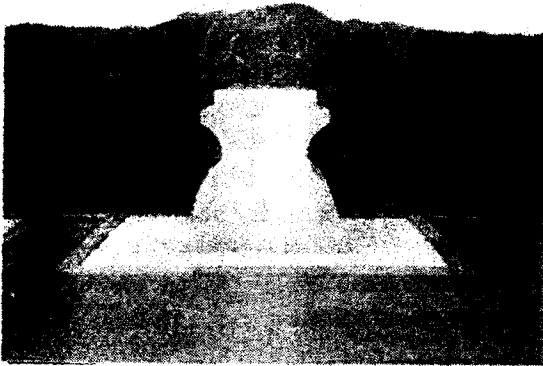


사진 2 진천 美湖저수지 건설紀念 標識石

4) 開校 80주년 紀念 이중섭 그림비

五山學校 개교 80주년 기념으로 이중섭 화백 母校에 建立된 그림비로 學校 개교와 이중섭을 동시에 기념하는 구상이 돋보인다. 화장암 전면을 잔다듬하여 李畫伯의 銅版 胸像과 作品 '아이들과 물고기와 새'를 陰刻하고 後面에 오석으로 紀錄板을 붙여서 이화백의 작품



사진 3 開校 80주년 紀念 이중섭 그림비

활동등 약력을 기록한 기능적 의미를 附加하였다. 특히 전면 이화백의 원형흉상은 모교를 빛낸 졸업생의 紀念이자 재학생의 自矜心을 높여 주는 表象으로 대단히 현실적이다.

높이 3m의 그림비를 바라보는 주 동선은 설치 위치에서 6m정도 떨어져 있어 對象별 거리와의 關係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며 바라봄이 자연스럽다. 단지, 校庭의 공간활용상 그림비 전면의 방향이 서남향인 점과 그림비 주변의 수목처리의 빈약함, 출입을 위한 디딤돌 주변의 無計劃的 배치 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5) 釜山 수영만 下水處理場 建設紀念標識石

釜山直轄市 下水處理場 건설 기념으로 세운 것으로 최근 도심의 대형 건축물 건립시 공사비의 1%이상 상정 조형물설치 의무화에 따라 形而上學的 象徴物이 많이 출현하고 있는데 이 기념석은 도심의 가장 조형물을 연상케 한다. 재질은 풍화작용에 가장 강한 花崗岩을 사용하였고 상·하단부 3곡선은 '川'字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단부의 '川' 즉, 汚水를 원형의 하수처리장을 통하여 다시 상류부의 맑고 깨끗한 '川'으로 내보냄을 象徴하고 있다. 전체적 곡선으로 인한 유연성이 두드러지며 하수처리장의 역할을 極明하게 表現한 것으로 돋보인다.

그러나 돌의 이음부분을 시멘트 모르타르로 接合하여



사진 4 부산 수영만 下水處理場 建設紀念標識石

장기적으로 풍화작용에 의한 부식등 영구적 保存對策에 있어서 아쉬운점이 있다. 따라서 돌의 이음에 있어서 格子 또는 陰陽式 끼워붙임, 석회 등의 화학적 풍화작용의 被害가 없는 接合方式이 널리 開發되어야겠다.

觀察거리에 있어서는 動線上에서  $D=2H$ 에 적합하여 紀念的 規模가 돋보인다. 설치 位置가 동선 후면에 위치하여 이용자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점이 短點이다.

#### 6) 夫餘 8景勝覽碑

夫餘 白馬江변에 새로 조성된 公園에 1986년 건립된 夫餘 8景勝覽碑는 基壇부의 가로 세로의 비율에 있어서 黃金比를 따랐으며 entasis적 점층미와 중간 층의 3가지 短柱형태의 받침대가 독특한 균형감을 보여 주는데 비 몸체 전후면에 8종의 夫餘 名勝을 그림비 形態로 표현한 점이 디자인상 매우 두드러진다. 材質에 의한 상부의 흑갈색 특이한 분위기는 夫餘 名勝을 사실적이며 진지하게 전해준다. 단지, 主動線 바로 전면에 위치한 設置 지점이 주변 민가, 수목, 산, 하늘과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調和를 이루지 못하여 借景의 효과를 半減하고 있으며, 紀念碑 후면의 차폐를 겸한 보호림의 부족이 아쉽다.



사진 5 夫餘 8景勝覽碑

#### IV. 考察 및 結論

어느나라, 어느시대를 莫論하고 文化는 각각 그 시대의 特性을 반영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한국의 전통적 美意識은 觀念的, 抽象的이며 직선적 방법으로 하나의 원리를 가정하는 歸納的方法으로 해석할 때, 한, 素朴性, 자연스러움, 無기교의 기교 등으로 代表된다. 또한 시대적 특성에 의한 演繹的 分析方法으로

접근한다면 전통적 돌 이용사례를 통하여 三才美, 借景技法, 물을 이용한 景觀의 延長, 人間的 尺度, 黃金比, 對稱 등을 돌이켜 보고 그로부터 더 아름답고 實用的이며 기능적, 한국적인 조형미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石塔과 석연지와 怪石에서, 그리고 한국 전래의 정신세계로부터 함축된 조형미의 원리를 재발견하고 이를 현대에 이용하여 우수한 문화유산으로 石造形物분야가 개척되어야 하겠다.

石造形物の 표준이라 할 수 있는 마을입구 표지석의 경우 전국 단위마을 또는 도, 군별 획일화 및 표준화를 과감히 탈피하여 개성있는 조형형태를 재창조하며, 특히 마을의 유래, 전설, 특산물, 주요인물, 역사적 사건, 사실을 소개하는 실용적이며 기능적 기록을 표현함으로써 명실공히 마을 공동대문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또한 石造形物이 환경조각분야의 한 특성을 유지하는 조경시설물의 한 분야를 떠 맡고 조경가, 건축가, 미술가 각각의 개성을 잘 융합, 개선하여 발전할 때 우리 고유의 조형문화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다.

본 研究의 目的은 石造形物の 유형화를 통해 건립 목적과 機能, 상징적 意味에 맞는 石조형물의 施工 專門化를 꾀함으로써 일선 현장 종사자에 대한 情報 및 資料로서의 가치부여에 있으며, 그 점에서 연구 資料의 수집 또한 학술적 의미보다는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實務 感覺이 더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石造形物에 대한 解析이나 分類 體系는 이론의 적용에 따라서는 異見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런 意味에서 본 研究는 完成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출발점이라 하겠다.

또한 연구의 範圍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세밀한 사항을 疏忽히 다룬 점도 없지 않으며 이러한 미비점에 대한 補完은 앞으로의 課題라 하겠다.

一線 현장의 實務者의 視覺에서 包括적으로 볼 때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石造形物の 材質은 대부분 花崗岩으로서 風化作用에 대한 耐性이 강하고 硬質이며 가공상태에 따라서는 視覺的인 效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돌 要素의 도입사례는 石假山, 怪石, 석연지, 石橋, 石塔, 敬臺등이 있으며 돌화, 장승등이 點景物, 기념물, 안내표지판으로 이용되었다.

셋째, 石造形物の 思想的 背景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상과 동서양의 조형미 이론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전통사상으로는 불교, 성리학의 隱遁思想, 道敎의 空利的 신선사상, 隱逸향의 老莊思想, 風水地理

說 등이 있으며, 조형이론으로는 三才美, 借景手法, 人間的尺度, 黃金比등을 들 수 있다.

넷째, 石造形物의 설치 위치 및 방향은 陰宅論, 風水地理說 등의 이론에 비추어 남향, 또는 남동향이 바람직하며, 거리는 인간적척도로서 선호도가 높은, 관찰시점에서부터 조형물 높이의 2배의 거리가 충분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 크기는 일반 石造形物의 경우는 인간적척도가 바람직하며, 기념성을 갖는 조형물은 기념적 크기가 選好된다.

다섯째, 전통적 石造形物에서는 樹木, 물의 활용과 차경기법이 부분적이며 한정적으로 채택되어 있는 바, 이의 적극적 도입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石造形物은 건립목적에 따라 (案內)標識石, 紀念標識石, 碑石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안내)표지석으로는 마을입구 표지석, 장승 등이 있으며, 기념표지석에는 건설기념탑, 전송기념탑, 경승비, 회호석 등이 있고, 碑石에는 공적비, 송덕비, 시비, 그림비, 묘비, 고인돌 등이 있으며, 그외에 각종 점경물, 건물주변의 환경 조형물, 종교물 등이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石造形物에 대한 論議의 出發에 불과하며, 그런 意味에서 理論的 補完과, 人類史에서 들을 活用하게 된 背景과 意味, 석조형물의 설치 장소에 대한 空間解釋의 現象學的 接近 및 각 디자인 요소, 그 構成技法을 現代의 石造形物과 대비시켜 導出된 결론의 새로운 解釋이 必要하며, 石造形物의 分類體系에 있어서 본 研究에서 提示한 機能的 分類를 多樣化하여 視覺對象의 設置 條件과 分析項目에 맞는 分類등 客觀性的 維持 및 分類된 石造形物의 각각에 대한 深層의 研究가 必要하며, 傳統 石造形物 또는 이를 현대적 의미로 再解釋한 石造形物의 施工 디테일에 관한 基準의 提示 및 活用方案에 관한 研究가 앞으로의 課題로서, 一連의 이러한 過程을 거침으로써 본 研究는 비로소 完成된다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1. 강호철(1987) 환경물로서의 괴석, 환경과 조경 20호
2. 건설부(1975) 조경공사 설계 기준, 조경공사
3. 김광래의(1985) 조경학, 문운당
4. 김영빈(1988) 원아론, 환경과 조경 26호
5. 김철준(1976) 국사
6. 김홍식(1984) 임원 16지의 상택지를 중심으로한 조선후기 건축계획론에 대한 연구, 문화재 17호
7. 김희경(1982) 탑, 한국의 미술 2
8. 동아출판사(1983) 원색세계대백과 사전16
9. 문화재관리국(1976) 한국문화재
10. 미술대학교재연구회(1987) 이미지구성
11. 박동천(1989) 전통조경양식으로서의 점경물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양식론
12. 서울특별시(1988) 서울의 다리
13. 선우정원(1987) 한국전통주택 마당의 척도, 비례분석을 통한 폐쇄성 및 개방성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 상류주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송민구(1986) 우리나라 옛 조형의 의미
15. 신영훈(1975) 한옥과 그 역사, 에밀레 미술관
16. 윤국병(1983) 지형의 변화를 얻기 위한 석가산, 환경과 조경 2호
17. 윤장섭(1986) 건축공간과 노장사상
18. 이규목(1988) 도시와 상징, 일조각
19. 이상현(1981) 석탑의 석재와 보존에 관한 지질학적 연구, 문화재 14호
20. 이유직(1987) 조선시대 공원의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상징성해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이진희(1986) 조경시설물 설계, 신학사
22. 임승빈(1986) 환경심리 형태론, 보성출판사
23. 임승빈(1975) 한국 고정원의 공간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4. 임승빈(1989) 인간적 척도의 기준에 관한 연구: 인간적 척도의 지각, 대한건축학회논문집 5권 1호
25. 임영배(1965) 화엄사 3층 4사자 석탑의 조형미에 관한 고찰, 대한 건축학회지 19호
26. 장충식(1987) 신라 석탑
27. 전성권외(1988) 기초 시각디자인
28. 정동우(1986) 한국의 정원, 대우학술문고, 민음사
29. 정무웅(1986) 속 외부공간의 미학
30. 정영민(1989) 풍수지리설과 건축물 배치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양식론
31. 주남철(1984) 한국전통 정원의 들, 환경과 조경 5호
32. 최만봉외(1986) 정원계획 설계론, 신학사
33. 최창조(1988)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34. 한승훈(1989) 전통공간배치와 지형과의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양식론
35. 황인주(1988) 인간적 척도와 시간적 선호의 공간규모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6. 황호근(1970) 한국의 미, 율유문고
37. Jaffe, a., 이희숙역(1979) Symbolism in the visual arts, 미술과 상징, 열화당 미술문고 50
38. Lynch, k. (1960) *The Image of the City*, Mass., MIT.